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Ego-identi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안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민하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권기남

Dept. of Child & Family,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An Jin, Yoo*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Full-time Instructor : Ha Yeoung, Min*

Dept. of Child & Family,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Ki Nam, Kown*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ego-identity, gender, grade(age), relationship with parents before entering the institution, cause of entering the institution, duration of entering the institution, parents' visiting,

\* 이 연구는 1999년도 학술진흥재단 두뇌한국21 핵심분야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institution. The subjects were 121 5th and 6th graders(59 boys and 62 girls), 135 middle school (58 boys and 77 girls), and 85 high school students (44 boys and 41 girls), who were institutionalized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d two-way ANOVA, Scheff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ego-identity, relationship with parents before entering the institution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institu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grade(age).
- 2) In regression analysis models, ego-identity and cause of entering the institu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ego-identity more predicted to depression than cause of entering the institution. And ego-identity and age(grad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and ego-identity predicted to school adjustment as well as grade(age).

**주제어(Key Words):** 시설 아동(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자아정체감(ego-identity), 심리·사회적 적응(psychosocial adjustments)

## I.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아동 소외 문제로 발전되자, 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소외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에 대한 논의(한국아동학회, 1999)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외된 아동이란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는 아동(Kadushin, 1984)으로, 부모의 존재나 가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박탈당한 아동을 의미한다(최일섭, 1999). 버려진 아동, 방임된 아동, 학대받는 아동, 그리고 비행과 범죄에 빠져든 아동 등이 소외된 아동의 구체적 예라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 육아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또한 소외된 아동의 대표적 일례라 할 수 있다. 소외된 아동 가운데 아동복지 육아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가출, 재혼, 경제적 빈곤 등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석산, 1984; 변용찬·이상현, 1998). 따라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안에 있지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또는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과 같은

문화적 실조 환경으로 인해, 심리·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시설 아동의 소외는 아동복지 육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변용찬·이상현,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등을 통해 또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일반 아동과의 비교 연구(김민자, 1991; 김영숙, 1993; 문진명, 2000; 장희순·이영, 1990; 조현경, 1995)를 통해 부분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아동의 소외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일반 아동과 비교한 물리적 또는 심리, 사회적 소외 정도만을 규명하고 있을 뿐, 시설 아동의 소외 유발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한 선행 연구는 일반 아동과의 비교 연구 방법을 선호함으로써, 시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지불식간에 강화시킬 여지가 있었으며, 시설 아동의 소외 유발 원인과 대처 방안을 시설 환경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

- 1) 육아를 목적으로 한 아동복지 육아시설에는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고 있으므로, 시설 아동은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아동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는 한계점이 내재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시설 아동의 소외를 심리·사회적 적응 측면에서 접근하되, 일반 아동과의 집단간 비교 연구가 아닌 시설 아동의 집단내 연구 방법을 취함으로써, 시설 관련 환경안에서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시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 성향과 낮은 학교 적응(김민자, 1991; 조현경, 1995)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울 성향이란 슬픈 감정, 외로움 등의 정서적인 증상과 죄의식, 무가치감,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 자살에 대한 생각과 같은 인지적 증상 및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일련의 심리상태(한유진, 1993)로, 자아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 등 '자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아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부정적일수록-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사람과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느낄때- 높은 우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Bandura, 1992)되고 있다. 학교 적응 역시 자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높은 학교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박은아, 1993; 현희순·김양순, 1999)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울 성향이나 학교 적응이 '자아에 대한 이해'와 관련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를 고려해보면, 자아에 대한 이해 중, 청소년기 대표적 발달과제로 간주되는 자아정체감은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이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Erikson(1968)에 의해 언급된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내적 탐색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이념 등에 있어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 즉 '자기다움'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노력을 의미한다. 즉, '나는 누구이며 장차 무엇을 할 수 있는

가?' 하는 자기 탐색적 물음에 대한 대답에 기초를 둔 자신의 능력, 위치, 역할에 대한 지각과 정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상이라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하려는 특성상,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앞으로 나아갈 전망을 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높은 도덕적 추론,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 긍정적인 또래간 상호작용, 좀 더 융통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및 성인기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 대인관계 등 성공적인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정문희, 1995; 현희순·김양희, 1999; Cauley & Tyler, 1989; Conger & Petersen, 1984; Schickedanz, Hasen, & Forsyth, 1990). 이는 자아정체감이 심리·사회적 적응의 토대로 기능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성별과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 적응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정문희, 1995)으로 나타났으며, 빈곤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이혼 등 사회적 소외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경험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내면화된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Bolger et al., 1995)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 및 학교 적응과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령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2차 성장에 의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자신을 재정의해야하는 발달과제로 인해 우울 성향이 증가(McFarlane, Bellissimo, Norman, & Lange, 1994; Rutter, 1979)할 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Jaffe, 1997)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시설 아동에게도 적용되어 청소년기 시설 아동이 학령기 시설 아동에 비해 심리·사회적 적응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시설 아동과 관련하여, 연령이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이나 학교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축적된 확인 작업이 요구된다.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이나 학교 적응은 자아정체감 같은 개인적 인성 특성이나 성별 또는 연령의 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입소 기간, 입소 원인, 입소후 부모와의 접촉, 시설의 심리적 환경 등 시설 입소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동이 사회적 존재로서 첫 경험을 하는 대상(Hales, 1990)이기 때문에 생의 초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아를 개념(Gecas & Schwalbe, 1986)지을 뿐 아니라, 성장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문혁준, 1999; Shaffer, 1994)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시설 입소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시설 입소 전 생의 초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빈곤 경험 기간은 아동의 자존감이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McLeod & Shanahan, 1993)되고 있다. 이는 물질적, 심리적 소외 기간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 미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설 입소 역시 빈곤과 같은 맥락에서 물질적, 심리적 소외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려해보면, 빈곤 기간이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로 간주되는 만큼 시설 입소 기간 또한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 자아개념과 시설 입소 기간과의 관계를 다룬 장희순과 이영(1990)이 시설 입소 기간이 7년 된 아동이 4년이 안된 아동에 비해 학문적 자아개념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김영숙(1993)은 학문적 자아개념이 입소 기간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시설 입소 기간의 관련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선 일관되지 않는 선행연구결과를 보완할 누적된 연구결과가 요구된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나 시설 입소 기간 외에 시설 아동이 일반적으로 부모의 가출, 이혼, 경제적 빈곤 등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 입소하며, 입소된 아동의 70-80%가 1년에 1-3회 정도만 부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변용찬·이상현, 1998)을 고려해 볼 때, 입소 원인이나 입소후 부모와의 접촉여부 등과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 연구는 시설 관련 환경안에서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행동 등 사회적 부적응이 역기능적인 가족 과정과 같은 심리적 환경과 관련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민하영, 1992; 한미현, 1993)를 기초해 볼 때, 시설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이며 지지적이며 애정적인 심리적 유대 관계를 표상하는 시설의 심리적 환경 또한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이나 학교 적응 등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시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시설 아동의 개인적 인성 특성 및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시설 입소와 관련한 경험 등과 연결시켜 살펴볼 수 있다.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설 환경과 관련시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와 입소 후 부모접촉여부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과 연령을 '개인 관련 변수'로, 입소 기간과 입소 원인을 '입소 관련 변수'로 그리고 시설의 지각된 심리적 환경을 '시설 관련 변수'로 조작 구분한 후, 개인의 인성 특성인 자아정체감과 더불어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기능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우울 성향/학교 적응)은 자아정체감과 개인 관련, 입소 관련 및 시설 관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우울 성향/학교 적응)에 대한 자아정체감, 개인 관련, 입소 관련, 그리고 시설 관련 변수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이 연구문제의 해결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나 프로그램 구성시 유용한 정보원(源)으

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설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보육사 뿐 아니라 학교에서 시설 아동을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에게 시설 아동을 이해하고 상담하며 지도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아동복지 육아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70% 이상이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아동인 점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후기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의 중점 발달과제(Chubb et al., 1997; Conger & Petersen, 1984)임을 고려하여, 아동복지 육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5, 6학년 학령기 아동과 중, 고등학생 청소년을 시설 아동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시설 아동은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소속의 서울 소재 육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총 341명으로 5, 6학년 초등학생 121명(남 59명, 여 62명), 중학생 135명(남 58명, 여 77명), 고등학생 85명(남 44명, 여 41명)이었다. 조사대상 시설 아동의 평균 연령은 2000년 2월 현재, 초등학생 12-13세, 중학교 14-15세, 고등학교 16-17세였으며, 평균 입소년도는 초등학생 95년 2월, 중학생 92년 7월, 고등학생 89년 2월로 나타나 평균 8세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원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실직이나 빈곤 등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44명(12.9%),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등 부부 불화가 158명(46.3%), 고아, 기아, 미아 등 부모부재가 83명(24.3%), 무응답 56명(16.5%)이었다.

### 2. 조사도구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아정체감,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시설의 지각된 심리적 환경 척도는 다음과 같다.

#### 1) 우울 성향 척도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 (1985)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우울 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다. CDI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 정도를 보고하는 자가 우울 평정 척도로, 우울의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우울 정서(5문항), 행동장애(7문항), 흥미상실(7문항), 자기 비하(4문항), 생리적 증상(4문항)으로 구성(총 27문항)되어 있다. 각 문항은 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세 문장으로 구분된 증세를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가끔 슬프다(1점)', '나는 자주 슬프다(2점)', '나는 항상 슬프다(3점)'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세 문장 중에서 지난 2주간 경험한 증세를 가장 잘 표시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위는 27점에서 8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 성향을 나타낸다. 27문항으로 구성된 CDI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alpha$ 는 .80으로 나타났다.

#### 2) 학교 적응 척도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선(1998)의 학교 적응 척도를 참고하여, 일부 용어를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박현선(1998)의 학교 적응 척도는 빈곤 환경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80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빈곤 환경 관련 현장에 종사하는 30명의 전문가들(3년 이상 경력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전문가, 대학 전임강사)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것으로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적응 척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평가하였다.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학교 적응을 의미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 3)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박경란, 1997; 박아청, 1995; 조현경, 1995; Adams & Fitch, 1982; Dignan, 1965)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자아정체감 측정도구를 구성한 후, 3인의 아동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예비 조사를 통하여 질문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자아정체감 척도는 자아목표감(목표 성취에 대한 의지), 자아미래감(자신의 인생목표가 무엇이며 자기의 행동 방향과 자신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자아수용감(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자아상), 자아주장감(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 대해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 대인친밀감(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자신의 일반적 경향)의 5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점수는 25점부터 10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다.

### 4)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척도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시설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의 관계망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 NR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후, 3인의 아동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총 9문항의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척도는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점수는 9점부터 4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 입소 전 부모와의 관계가 지지적이고 온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로 나타났다.

### 5) 시설의 지각된 심리적 환경 척도

시설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이며 지지적이며 애정적인 심리적 유대 관계를 표상하는 시설의 지각된 심리적 환경 척도는 정원식의(1975)의 '가정환경조사 질문지'를 참조하여 김형태(1989)가 작성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 측정 도구'를 시설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시설의 심리적 환경은 성취(4문항), 친애(4문항), 응집(4문항), 자율(4문항), 구성원의 상호간 태도(4문항)를 묻는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 구성원과의 지지적이며 애정적인 심리적 유대 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로 나타났다.

## 3. 조사 절차

2000년 1월 28일에서 2월 2일까지 서울 소재 아동복지 육아시설 1곳의 5, 6학년 초등학생 아동 20명과 중, 고등학생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용 질문지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00년 2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 1명과 연구보조자 1명이 편의표집된 아동복지 육아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의 시설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집 대상은 2000년 2월 현재 5, 6학년 초등학생 131명, 중학생 135명, 고등학생 97명으로 총 36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22부를 제외한 341부가 최종적으로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9.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t$ 검증,  $F$ 검증, Scheffé 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성향, 학교 적응, 자아정체감, 개인 관련 변수, 입소 관련 변수, 시설 관련 변수에 대한 사례수 및 평균과 범위 등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시설 아동의 우울

#### 1. 자아정체감과 개인 관련, 입소 관련 및 시설 관련 변수에 따른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표 1>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성향, 학교 적응, 자아정체감, 개인 관련, 입소 관련, 시설 관련 변수의 사례수, 평균과 범위

변 수	구 분	사례수	평균(SE)	범 위	
개인관련변수	성 별	남자	156(46.4)		
		여자	180(53.6)		
	연령(학년)	초등학생	121(36.1)	12-13세	
		중학생	129(38.5)	14-15세	
고등학생		86 (25.4)	16-17세		
부모접촉 여부	유	72(21.4)			
	무 결측치	177(52.7) 87(25.9)			
입소전 부모관계	낮은집단 중간집단 높은집단 결측치	71(21.1)	25.6(8.1)	9-44	
		103(30.7)			
		69(20.5)			
		93(27.7)			
입소관련변수	입소원인	가정문제	201(59.8)		
		부모부재	83(24.7)		
		결측치	52(15.5)		
입소기간	5년 미만	105(31.3)	7.4(4.2)	1-18	
	5-10년	136(40.5)			
	10년 이상	95(28.3)			
시설관련변수	시설의 심리적 환경	낮은 시설	93(27.7)	56.7(9.3)	23-76
		중간 시설	105(31.3)		
		높은 시설	86(25.6)		
		결측치	52(15.5)		
	자아정체감		67.9(11.0)	39-99	
심리 사회적 적응	우울 성향		54.8(6.5)	41-79	
	학교 적응		48.4(11.4)	20-76	

- 1) 연령에 기초한 학년 구분임을 토대로 연령은 이후 학년으로 대체 표기함.
- 2) 부모접촉의 경우 지난 6개월 간, 직접 만나 상호작용하는 경우만 포함시키고 우편이나 전화연락 접촉은 제외함.
- 3) 부모부재의 경우 부모 사망 뿐 아니라 부모 생존 여부 모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4) 입소원인 중 가정문제는 경제적 빈곤, 부부불화 등을 의미함. 경제적 빈곤, 부부불화 등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가정문제로 일괄 구분하였음.
- 5) 입소전 부모관계와 시설의 심리적 환경은 점수 분포 상·하위 30%를 중심으로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함.

실시한 결과, <표 2>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은 자아정체감과 학년,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시설의 심리적 환경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정체감과 개인 관련, 입소 관련, 시설 관련 변수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이는 학년이나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또는 시설의 심리적 환경과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이 자아정체감에 의해 심화되거나 완화되지는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 관련, 입소 관련, 시설 관련 변수에 따른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을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의 경우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를 지지적 관계로 높이 평가한 아동은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를 낮게 평가한 아동에 비해 우울 성향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학교 적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높이 지각하고 있는 아동은 낮게 지각하고 있는 아동에 비해 낮은 우울 성향과 높은 학교 적응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

<표 2> 개인 관련, 입소 관련, 및 시설 관련 변수와 자아정체감에 따른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

변량원	SS(자승합)	df(자유도)	MS(평균자승)	F
성별 (A)	47.8	1	47.8	1.6
자아정체감(B)	3343.4	2	1371.6	54.7***
A×B	62.4	2	31.2	1.0
오차	7887.1	258	30.6	
학년 (A)	134.5	2	67.3	2.3
자아정체감 (B)	3343.3	2	1371.6	55.8***
A×B	222.6	4	55.7	1.9
오차	7640.1	255	29.9	
부모접촉 여부(A)	10.0	1	10.0	.3
자아정체감 (B)	2517.8	2	1258.9	39.3***
A×B	34.8	2	17.4	.5
오차	6123.9	191	32.1	
입소전 부모관계(A)	249.6	2	124.8	4.2*
자아정체감 (B)	3035.5	2	1517.7	50.9***
A×B	82.7	4	20.7	.7
오차	5457.4	183	29.8	
입소 원인(A)	89.2	1	89.2	3.0
자아정체감 (B)	3236.1	2	1618.1	54.0***
A×B	35.5	2	17.7	.6
오차	6629.2	221	29.9	
입소 기간(A)	77.9	2	38.9	1.3
자아정체감 (B)	3352.6	2	1676.3	54.2***
A×B	6.9	4	1.7	.1
오차	7913.7	256	30.9	
시설의 심리적 환경(A)	232.5	2	116.2	4.2*
자아정체감 (B)	2963.0	2	1481.5	52.9***
A×B	199.8	4	27.9	1.8
오차	6178.4	221		

1) \*  $p < .05$  \*\*\*  $p < .001$

2)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 없음



〈표 3〉 개인 관련, 입소 관련, 및 시설 관련 변수와 자아정체감에 따른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

변량원	SS(자승합)	df(자유도)	MS(평균자승)	F
성별 (A)	342.8	1	342.8	3.0
자아정체감(B)	4182.5	2	2091.3	18.4**
A×B	532.4	2	266.2	2.3
오차	31054.8	273	113.8	
학년 (A)	5620.6	2	2810.3	29.8***
자아정체감 (B)	4006.6	2	2003.3	21.3***
A×B	747.0	4	186.8	2.0
오차	25359.2	269		
부모접촉 여부(A)	14.7	1	14.7	.1
자아정체감 (B)	2733.6	2	1366.8	11.7***
A×B	.04	2	.02	.0
오차	23445.7	200	117.2	
입소전 부모관계(A)	698.8	2	349.4	3.2*
자아정체감 (B)	2967.8	2	1489.9	13.4**
A×B	458.9	4	114.7	1.0
오차	21528.2	195	110.4	
입소 원인(A)	367.5	1	367.5	3.3
자아정체감 (B)	4385.3	2	2192.6	19.7***
A×B	73.4	2	36.7	.33
오차	4826.2	237	111.3	
입소 기간(A)	485.1	2	242.5	2.1
자아정체감 (B)	4243.5	2	2121.7	18.4***
A×B	163.7	4	40.9	.4
오차	31291.2	271	115.5	
시설의 심리적 환경(A)	1363.2	2	681.6	5.9***
자아정체감 (B)	4011.9	2	2005.9	17.3**
A×B	82.4	4	20.6	.2
오차	26985.1	233	115.8	

1) \* p<.05 \*\* p<.01 \*\*\* p<.001

2)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 없음

의 애착이나 부모-자녀 관계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정애, 1999; Armsden, McCau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 Conger, et al., 1992)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학교 적응은 우울 성향과 달리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학교 적응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가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이나 학교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은,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이 아동

기때 경험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문혁준, 199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발달적 궤적(pathways)안에서 생의 초기 경험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설 입소전 지지적이지 못한 부모 양육을 경험한 시설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입소후 부모접촉 여부는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접촉의 양과 질이 고려되지 못한 채, 지난 6개월

〈표 4〉 개인 관련, 입소 관련, 시설 관련 변수에 따른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 분	심리·사회적 적응			
			우울 성향	t/F 값	학교 적응	t/F 값
개인관련변수	성 별	남자	55.0(6.2)	.64	47.4(11.4)	.35
		여자	54.6(6.9)		49.3(11.3)	
	학 년	초등학생	55.1(6.8)	.28	53.8( 9.2) a	33.3***
		중 학생	54.6(6.7)		48.2(10.9) b	
고등학생		54.5(6.1)	41.6(10.8) c			
부모접촉여부	유	53.9(6.9)	.09	49.5(10.8)	1.1	
	무	55.1(6.6)		47.8(11.6)		
입소전 부모관계	낮은지지 중간지지 높은지지	낮은지지	57.7(6.7) a	9.1***	45.6(10.5) a	5.1**
		중간지지	54.1(6.3) b		47.7(11.1) a	
		높은지지	53.2(6.6) b		51.7(11.6) b	
입소관련변수	입소원인	가정문제	54.4(6.6)	-.77	48.9(11.3)	1.4
		부모부재	55.1(6.5)		46.8(11.6)	
	입소기간	5년 이하	54.0(6.5)	.50	50.4(10.0)	2.9
5-10년		55.4(6.7)	48.0(12.2)			
10년 이상		54.8(6.4)	46.5(11.2)			
시설 관련변수	시설의 심리적 환경	낮은시설	57.0(6.7) a	8.4***	44.1(12.5) a	9.6***
		중간시설	53.8(5.7) b		49.3( 9.2) b	
		높은시설	53.4(6.4) b		51.2(12.0) b	

1) \*\* p&lt;.001 \*\*\* p&lt;.001

2)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 없음

동안 경험한 부모접촉 유무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시설 아동의 부모접촉이 일년에 1-3회임을 고려(변용찬·이상헌, 1998)해 보면, 부모접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접촉이 없는 시설 아동과 유사한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매우 낮은 빈도의 부모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독립변수	종속변수	심리·사회적 적응	
		우울 성향	학교 적응
자아정체감	낮은집단	59.1(6.5) a	43.1(10.6) a
	중간집단	55.1(5.1) b	48.8( 9.8) b
	높은집단	50.1(4.9) c	53.0(11.9) c
F값		54.9***	18.4***

1) \*\*\* p&lt;.001

2)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 없음

〈표 2〉과 〈표 3〉의 이원변량분석에서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에 주효과를 나타낸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이 낮은 시설 아동은 자아정체감이 높은 시설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 성향과 낮은 학교 적응을 나타냈다. 이는 자아감이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박은아, 1993; Bandura, 1992)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2.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자아정체감, 개인 관련, 입소 관련, 및 시설 관련 변수의 상대적 설명력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6〉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자아정체감, 개인 관련, 입소 관련, 및 시설 관련 변수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수	심리·사회적 적응			
	우울 성향(n=113)		학교 적응(n=119)	
	B	$\beta$	B	$\beta$
성별			-5.1	-.36***
학년(연령)				
부모접촉 여부				
입소전 부모관계				
입소 원인	-3.1	-.19*		
입소 기간				
시설의 심리적 환경				
자아정체감	-.38	-.60***	.32	.31***
$R^2$	.40		.26	
adj. $R^2$	.39		.25	
F	37.1***		20.6***	

1) \* p<.05 \*\*\* p<.001

2) 성별: 남자 1, 여자 0 부모접촉 여부: 유 1, 무 0

입소 원인: 가정문제 1, 부모부재 0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독립변수간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 -Watson 계수가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에서 모두 2이하로 나타나 오차항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 보호 아동의 우울 성향은 입소 원인( $\beta=-.19$ )과 자아정체감( $\beta=-.60$ )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입소 원인의 경우 <표 4>의 t 검증에서와 달리, 개인 관련 변수, 입소 원인의 입소 관련 변수, 시설 관련 변수 및 자아정체감이 통제되었을 때,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t 검증시 억제 변수에 의해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던 입소 원인이 다중회귀분석에서 억제 변수가 통제됨으로써 비로소 그 영향력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와 시설의 심리적 환경은 <표 4>의 F 검증에서와 달리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에서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에 대한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와 시설의 심리적 환경의 영향력이 관련 변수들에 의해 중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추후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입소 원인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입소한 아동에 비해 부모부재로 시설에 입소했을 때 우울 성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부재로 입소한 아동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과 지도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은 입소 원인보다 자아정체감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을 극복시키는데 있어 자아정체감 육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적응의 경우 학년( $\beta=-.36$ )과 자아정체감( $\beta=.31$ )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고 있으나, 상대적 크기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유의할 점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유윤희, 1994; 이현정, 1997)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학교 적응은 학령기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보다 유의하게 낮다는 점이다.

## V. 결론 및 논의

사회적으로 소외된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 방안을 시설 환경안에서 파악하고자 한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아동복지 육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5, 6학년 초등학생 131명, 중학생 135명 그리고 고등학생 97명 등 총 36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이 개인적 인성 특성인 자아정체감 및 개인 관련(성별, 연령, 부모접촉유무, 시설 입소전 부모관계), 입소 관련(입소기간, 입소원인)과 시설 관련 변수(시설의 심리적 환경)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은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시설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며, 학교 적응은 학년,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시설의 심리적 환경 그리고 자아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은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 시설의 심리적 환경 또는 학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울 성향은 자아정체감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를 지지적으로 높이 지각하는 경우보다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높으며,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높이 지각하는 경우보다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높다. 한편 학교 적응은 자아정체감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학령기 초등학생보다 청소년기 고등학생이,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를 지지적으로 높이 지각하는 경우보다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낮으며,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보다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높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시설 환경안에서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을 극복시키거나 학교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거나,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구성하는데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지적이고 양육적인 경험이 부족한 시설 아동의 경우, 입소후의 부적응 심리·사회적 적응이 우려되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 지도 및 관리 그리고 심층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우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를 다룬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시설 아동의 경우 비록 부모와의 관계가 시설 입소로 인해 더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하더라도, 생의 초기에 경험한 지지적이고 양육적이지 못한 부모의 태도가 시설 입소후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가 갖는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했으면 한다.

둘째,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은 관련 변수를 통제했을 때 자아정체감과 입소 원인에 의해서 유의하게 설명되지만, 입소 원인보다 자아정체감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 한편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은 관련 변수를 통제했을 때 학년과 자아정체감에 의해서 유의하게 설명되나, 상대적 설명력에 있어 두 변수간 차이는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을 지도, 관리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시설 아동(조현경, 1995)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많은 선행 연구(김형태, 1989; 박은아, 1993)들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규명에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결과를, 일반 아동과 다른 생활 조건과 환경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 아동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성의 문제를 지적 받을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정을 통해 그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방해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 적응은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만큼이나 학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시설 아동도 일반 아동(이현정, 1997)과 마찬가지로 학령기 초등학생보다 청소년기 중, 고등학생일수록 낮은 학교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일반 청소년기 중, 고등학생의 낮은 학교 적응은 대학 진학과 관련한 부모의 높은

학업성취기대나 학업 부담으로 해석(이현정, 1997)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아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60%정도가 취업(변용찬·이상현, 1998)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낮은 학교 적응은 청소년기 일반 아동의 낮은 학교 적응과는 다른 이유로 설명되어야 할 것 같다. 몇몇 연구(노봉련, 1997; 윤광현, 1993)에서 시설 아동의 낮은 학교 적응을 학업부진이나 재정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학년'의 설명력이 '자아정체감'과 비슷할 만큼 비중 있음을 고려해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설 아동의 학교 적응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폭넓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안에서,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고자 한 기초 연구이므로 첫째,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심도있는 원인 규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시설 아동의 우울 성향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이나 시설의 심리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둘째, 자기 보고식 회고적 자료가 갖는 정확성이나 신뢰성의 문제점을 최소한 보완하고자,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는 다양한 영역의 세부적인 지지 경험이 아닌 전반적인 지지 경험만을 측정함으로써 시설 입소전 부모와의 관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아동 특히 아동복지 육아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측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 참고문헌

- 김민자(1991). 일반 및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환경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산(1984). 육아시설 아동의 입소 원인 분석을 통한 이들의 가정복귀 가능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93). 시설 아동의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봉련(1997). 시설아동의 학업부진의 원인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진명(2000).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또래피해지각에 따른 또래따돌림 귀인 및 소외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 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47-151.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경란(1997).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연(1992).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1992).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및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2.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박은아(1993). 가족 구조, 학교 생활 및 가정생활적응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용찬, 이상현 (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광현(1993). 육아시설아동 생활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순, 이영(1990). 시설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과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1(1), 100-114.
- 정문희(199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이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경(1995).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일섭(1999). 소외된 아동의 실상과 사회적 책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18
- 한국아동학회(1999). 소외된 아동의 실상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아동전문가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1996).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미현(1993).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1-194.
- 현희순, 김양순(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제주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아동학회지*, 12(1), 249-262.
- Adams, G. R., & Fitch, S. A. (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cross-sequential analysi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574-583.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6), 683-697.
- Bandura, A. (1992). Exercise of personal agency through the self-efficacy mechanism. In R. Schwarzer (Ed.).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pp.3-38). Washington, DC: Hemisphere.
- Bolger, K. E., Patterson, C. J., Thomp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Cauley, K., & Tyler, B. (1989). The relationship of self-concept to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51-60.
- Chubb, N. H. Fetman, C. L., & Ross, J. L. (1997). Adolescent esteem and locus of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dolescence*, 32(125), 113-129.
- Conger, J. J. & Petersen, A. C. (1984). *Adolescence and youth*. NY: Harper & Row.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77-290.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Hales, S. (1990). Valuing the self: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elf-esteem. *Saybrook Perspective*, 4, 3-17.
- Jaffe, M. J. (1997). *Understanding parenting*(2nd Ed.). Boston: Allyn & Bacon.

- Kadushin, A. (1984). *Child welfare services*. N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McFarlane, A. H., Bellissimo, A., Normon, G. R., & Lang, P. (1994). Adolescent depression in a school-based community sample: Preliminary findings on contributing social factors. *J. of Youth Adolescence*, 23(6), 601-620.
- Rutter, M. (1979). *Changing youth in a changing society*. London: Nuffield Provincial Hospital Trust.
- Schickedanz, J. A., Hasen, K., & Forsyth, P. D. (1990). *Understanding children*. Mountain View: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3rd. Ed.)* CA: Brooks/Cole Publish Company.